

성장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존 오트버그/ 윌로크릭교회 설교목사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들이 당신의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당신의 일상적인 식사 시간과 TV시청을 방해하며 다급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올림픽에서 마라톤 선수로 출전할 선수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야말로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줄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 내렸습니다. 마라톤에 출전하십시오.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매우 놀랍니다. 당신이 뛰어본 최장거리라고는 쇼파에서 냉장고까지가 고작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놀람이 가시자, 당신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깨닫게 되고 불현듯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세계적인 육상선수들 사이에 끼어 있는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애국가가 울리며 국기가 올라가고 단상에 서서 머리를 굽혀 메달을 받는 모습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런 생각이 일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리, 정말 열심히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마라톤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기로 진지하게 마음을 먹는다면 당신은 훈련의 삶 속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삶을 훈련을 중심으로 다시 배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지력만으로는 이를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라톤을 뛸다고 할 때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try)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train)입니다. 훈련의 필요성은 육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음악연주자들에게도 요구되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 훈련은 삶의 의미심장한 도전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에 대해 제가 배운 유일한 것이자 가장 유익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과 ‘무엇을 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의 많은 시간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는 그와 같아지도록 열심히 시도하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인내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월요일에는 인내의 사람이 될 결심으로 깨어나곤 했습니다. 세 살 짜리 꼬마에게 인내하려고 노력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일은 훈련 없이 마라톤을 하려고 열심히 시도하는 일보다 결코 형편이 낫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탈진되어 두 손을 들게되었지요. ‘예수를 따른 것’에 대해 설명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영적인 변형은 보다 더 열심히 시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하게 훈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호하던 디모데에게 “경건으로 자신을 훈련하라”고 격려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충고의 배후에서도 놓여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9:25)

육상선수는 바울의 청중에게 잘 알려진 이미지입니다. 고린도는 이스트모스 경기제전(the Isthmian Games)의 장소였습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입니다. 선수가 연습 없이 열심히 시도하는 것만으로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기에 임하는 어떤 선수도 10달간의 냉혹한 훈련을 거칠 것이 요구되었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역시 훈련의 삶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노라.”(27절)

준비 혹은 훈련의 이러한 필요성은, 육체적, 혹은 지적인 활동에도 적용되듯이, 건강하고 활기 있는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배우기는 마라톤 경기, 혹은 피아노 연주를 터득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입니다.

저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사실이 저의 어둠에 빛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성인으로서 처음으로 저는 예수를 따른다는 개념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예수로부터 내가 성령의 열매가운데서 살수 있도록 하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내 삶을 정리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영적인 단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훈련의 관념은 율법주의, 혹은 하나님의 선의지를 얻으려는 시도, 새해 결심들 즉 실제적이지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닌 선한 의도들과 같은 어떤 것과 연관됩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바른 시기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기본적인 실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독, 중됨, 고백, 성경묵상. 그러나 대부분의 행동들을 영적인 삶을 위한 훈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바람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분다

영적인 성장을 단지 훈련의 산물처럼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구리가 왕자로 변신합니다. 혹은 좀더 멋있고 친절한 개구리로. 일에는 늘 신비하고 경이로운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서는 그 신비한 어떤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나”(요 3:8)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분별을 요구합니다. 성령의 이 신선한 바람에 응해야 합니다. 모세는 불타는 나무를 요구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나타나자, 그는 돌이켜 하나님의 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불타는 나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신앙서적을 한 권 사서 그것을 연말까지 다 읽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저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어 어떤 본문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식으로 중단하게 되면 이 책을 연말까지 읽는다는 목표에는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정확한 시간’내에 완독하는 것이 저의 헌신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제 자신을 두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본문을 통해 제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문초를 받고 있거나, 혹은 고침을 받고 있거나, 또는 도전을 받고있거나, 저의 임무는 그 바람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 멈추어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는 얼마나 많은 성경구절을 우리가 읽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기도하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순간에 좌우되는 경향이십니까? 아니면 잘 조직하고 미리 계획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순간에 잘 좌우되는 사람들은 종종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런 성향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는 일상을 따라 사는 삶이 이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만약 아직도 당신이 어느 쪽의 스타일인지 결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이 임의적인 성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이야기하실 지도 모릅니다.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침묵과 기도에도 보통 이상의 능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지나, 상징들, 정교한 예술들에 보다 강하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루이스(C. S. Lewis)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다른 면모를 보도록 창조되었다. 어떠한 누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그리고 그들 외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면모에 대해 모든 경배자들을 영원히 축복하도록 지음받았다.”

당신의 영적 계절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계절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의 한 어머니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영적인 삶을 살기가 보다 수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의 두 가지 행동들이었습니다. 엄마로서 그녀는 ‘시간만이’(time alone)라는 말이 모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돌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움을 간구하고, 시련을 인내로 수용하는 것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강력한 중됨의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홀로 평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대학시절에 가졌던 시간의 자유로움을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예전에 갖지 못했던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리듬은 어떻습니까?

생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는 리듬입니다. 밤은 낮을 따르고 겨울은 봄을 따라가며 우리는 깨어나고 잠듭니다.

영적인 삶 역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안의 때가 있으며 황폐의 때가 있습니다. 위안의 때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성경이 살아 있으며, 죄가 약해 보이고 모든 신호가 푸른등입니다. 황폐의 때에는 바로 그 반대이지요. 성경이 건조해 보이고 기도고 힘들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리듬의 법칙을 망각하면 우리는 지금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평온의 시간이 찾아 왔을 때 저는 이제 영적인 삶을 모두 이루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황폐의 시간에는 뭔가 잘못을 저질렀음에 틀림없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벌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이 두 시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두 시기는 고유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배우는데 헌신적인 그룹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오랜 시간동안(최소한 저에게는 길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기

도를 할 때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를 배웠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기 위해 때때로 깨어있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단지 그 고요함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기도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기도모임이 해제되고 난 후에, 저는 함께 모여 기도하였을 때보다 훨씬 적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스스로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현명한 친구가 저에게 설명해 주기를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잠시 쉼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쉼을 가지고 난 후에 기도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생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삶이 이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이해했을 때 저는 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훈련의 삶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온갖 육체적 잠재력과 조건들에 가까워집니다. 그들은 바디빌딩 대회에서 육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자신들의 육체를 개발하는데 노력합니다. 먹기, 운동, 쉼 등등의 습관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배열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은 보고 “와, 사람의 몸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몰랐는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신체 상태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아내와 저는 조각 같은 몸매로 유명한 어떤 남자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체가 화면 가득히 드러났을 때, 낸시가 그를 보고는 다시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키가 6피트고 몸무게가 130파운드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저의 몸무게는 이상한 곳에서 불어났습니다.- 낸시는 다시 그를 한번 쳐다보고 나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보, 저는 몸매가 멋있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내가 말한 기저 어딘가에 저에 대한 칭찬이 있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숨어 있어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영화배우를 닮는 것에 대해 꺼리낌은 없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목표를 기준으로 저의 삶을 배열하려고 마음먹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그의 현존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복음’(福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와, 삶이 저런 것인 줄 몰랐는걸!”이라고 말할 정도로 살아가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 이 글은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전문 베스트 매거진 [목회와신학] 2002년 5월호(통권 155호) 258-261쪽에 실린 글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